

성서와 5대 제국 (1)

2018.8.1.
길잡이
신연식 목사

1. 들어가며..

우리가 읽는 성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신앙고백들이 전승, 기록, 편집되어 묶인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쓰인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건설된 제국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지 않았던 제국은 없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영토 안에 두었다. 그러한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성서 특강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성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메소포타미아 문명(『돌려라! 시간나침반』 참조)

창세기의 첫 부분은 메소포타미아가 배경이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두 강은 터키의 산악 지대에서 발원하여 시리아를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라크 남부에서 합류, 페르시아만에 도달한다. 메소포타미아는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

을 갖추고 있었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도 물과 먹을거리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는 끊임없이 수로와 운하를 관리하는 관개 사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관개 사업 덕분에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어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장사를 하거나 청동으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 전쟁을 담당하는 전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도시의 신을 모시는 사제와 도시를 지배하는 왕도 나타났다. 사제나 전사, 왕은 경제력과 권력을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였다. 이렇게 도시는 점차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이것을 도시 국가라고 한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와 달리 개방적인 주위 환경으로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잦아 정치적으로 변화가 심하였다.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2400년경 북방으로부터 침입해 온 셈 족에게 차례로 정복당했다. 그 후 아카드 인이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아카드 왕국을 세웠으나 곧 쇠퇴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아무르 인이 바빌론을 도읍으로 정하여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다. 이 왕국은 기원전 1700년경에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루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시리아 지방까지 세력을 떨쳤다. 함무라비 왕은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으며, 바빌론에 신전·왕궁 등을 세웠다. 또 각지에 운하를 파고 상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국의 번영도 오래 가지 못하고 카시트 인, 히타이트 인 등 주변 민족의 잇따른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그 후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새 왕국을 일으켰는데 이 왕국을 신 바빌로니아, 전의 왕국을 고 바빌로니아라고 한다.

3. 아시리아 제국(신아시리아 제국 B.C. 911-6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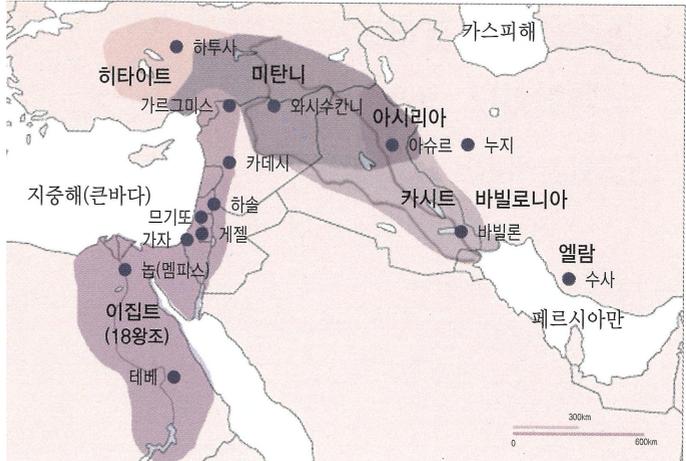
(1) 제국과 제국주의

- 제국 : 임페리움(Imperium)의 속어적 개념이다.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파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한다.
- 제국주의 :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

(2) 아시리아 역사와 특징

① 아시리아의 등장

아시리아(아시리아라는 이름은 그들의 신의 이름인 아슈르에서 유래)가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BC 1830년경에 고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아시리아는 BC 18세기 중엽 지금의 이란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민족처럼 작은 부족국가로 시작하였고, 4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세력을 키워 나갔다. 그리하여 BC 1400년대에는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의 카사이트(고 바빌로니아), 남쪽의 이집트, 동방의 미탄니와 함



<기원전 1500년경 고대 근동 세계>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정 지분을 갖는 나라로 성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동방의 인도에서 이동해 온 아리안 족과 이들에 밀리고 있는 토착 세력 후르리족 간의 어지러운 합종연횡의 쟁패가 이어진다. 쟁패의 중심에 있던 히타이트는 BC 13세기 이후로 급격히 쇠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중에 BC 717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다. 히타이트도 수메르와 아시리아처럼 이후 3천 년 간 존재 자체가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히타이트가 우세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미탄니로부터 도입한 말이 끄는 전차와 함께 근동 최초로 독점적으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때문이다.

이 제철 기술이 아시리아로 들어가며 이를 재빨리 군대에 전면 활용한 아시리아가 이후 패권을 차지한다. 이후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아시리아, 신 바빌로니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이 약 1천년에 걸쳐 차례로 영고성쇠를 되풀이한다. 이들 여러 나라의 흥망극은 페르시아가 소아시아부터 이집트를 포함하여 이란 동부 고원까지 중동의 전 지역을 통일할 때까지 이어진다.

② 아시리아의 성장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던 아시리아는 BC 1390년 **아슈르 우발리트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전기를 맞는다.** 그는 아시리아의 통일을 이루고 미탄니 왕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하며 근동에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를 드러낸다. 중동의 지리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상업의 중계지를 바탕으로 부를 쌓으며 BC 1200년대부터 자유농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철제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원동력으로 하여 이 지역의 패자 국가로 발돋움

하게 된다. 아시리아는 나라 전체가 군국주의적 조직으로 유명하며 그 군대 전부를 철제 무기로 장비하였다.

아시리아의 역사는 한번 팽창한 뒤에는 오랜 기간의 내란과 혼란의 시기가 있고 이윽고 그것을 극복하고서 다음의 비약기를 가지며 이때 판도가 더 확대된다는 방식의 다이내믹한 성장코스를 밟았다. 아시리아는 BC 1300년 경 한때 카시트 왕조의 수도인 바빌론을 점령했다가 내분으로 다시 빼앗기기도 하며 몇 차례 위기와 굴곡을 거치지만 잠재력은 축적되어 갔다. BC 1275년 한때 자신들을 지배했던 미탄니를 멸하고 BC 1100년 디글랏 빌레셋 1세 때 최초로 지중해까지 진출하며 이집트와도 접경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사후 극도로 쇠약해져 티그리스 강 상류의 작은 땅으로 쪼그라들고 이런 상태로 또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다. 다행히 주변에 강력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 기간에 주변의 문화를 흡수하여 다문화적 복합적 국가로 변모한다. 이리하여 이미 거의 천년에 이르는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친 아시리아는 군국주의적 체제를 강화하여 더욱 공격적인 나라가 된다.

③ 아시리아의 팽창

아시리아는 BC 911년 아다드 니라리 왕에 의해 인근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오랜 숙성의 기간을 끝내며 이때부터 점령지에 대한 아시리아의 격렬하고 무자비한 지배 방식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이후를 이전과 구분하여 신 아시리아라고 하며 아시리아의 최전성기를 이룬다(BC 911~612년). 아시리아는 거침없이 페니키아, 시리아, 히타이트를 차례로 격파한다.

BC 671년에 이르러서는 아시리아의 가장 현명한 왕이었다는 아슈르바니팔 왕이 이집트까지 점령하여 이집트의 오랜 수도 테베를 괴멸시킴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 근동을 아우르는 대제국이 된다. 이리하여 철제무기와 군국주의로 무장한 아시리아가 고대 중동 최초의 통일제국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너무 멀어(2,500km) 영속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BC 2000년대에서 BC 600년 중반까지 민족 이동의 대 혼란기를 거치는 장구한 기간 동안 근동에서 이와 같이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유지했던 나라는 아시리아가 유일하다. 아시리아왕도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으로 국민을 통치하였다.

④ 아시리아의 멸망

아시리아는 아슈르바니팔 치세 말년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스키타이인(BC 6~3세기경 남부 러시아의 광대한 초원지대인 스키타이에서 활약한 최초의 기마유목 민족)의 침입과 약탈이 있었다. 이때 아시리아는 전과 같은 신속 과감한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쇠퇴의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후 왕위 계승으로 말미암은 내분이 일어나며 이로 말미암아 제국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이 틈을 타 메디아 지역(이란 서북부 고원지대)에서 각사레스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바빌론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아시리아 방면군 사령관인 나보폴라사르가 반란을 일으켜 신 바빌로니아 왕조(갈데아 왕조로도 불림)를 세운다(BC 622년).

BC 615년 각사레스와 나보폴라사르의 후계자 느부갓네살의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수개월의 공방 끝에 아

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점령한다(BC 612년). 연합군은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 도시를 파괴한 방식대로 니네베를 철저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왕을 포함하여 전 아시리아 인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전을 펼쳤다. 아시리아 전역에서 전형적인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의 살육전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아시리아군 18만 5천명이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는 일도 일어난다.

니네베가 완전히 함락되자 이제까지 아시리아의 가혹한 지배 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지내던 전 근동 세계에서 대대적인 환호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아시리아 잔존 세력에 의한 마지막 저항이 있었으나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고 BC 610년 마지막 거점도시도 함락되면서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한다. 몇 세기에 걸쳐서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압도하며 악명을 떨쳐 온 거인 제국 아시리아는 멸망과 함께 인간의 기억에서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의 기나긴 성숙 기간에 비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백년 남짓하다(BC 745~625년).

⑤ 아시리아 제국의 특징

•**공포심에 기반한 통치** : 아시리아가 특별히 주목받고 유명한 것은 점령지에 대한 가혹하기 그지없는 통치 방식 때문이다. 특히나 일단 아시리아의 지배를 인정했던 나라가 배반이라도 할라치면 그 보복은 무자비하고 격렬하기 짝이 없었다. 이처럼 인정사정없는 파괴·살해 일변도로 지배하고 통치한 결과 흔적도 없이 멸절된 민족이 한 둘이 아니었다. 구약성서에도 아시리아인의 폭압적 행태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화 있을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궤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

는도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달리는 말, 뛰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 같도다.”(나훔 3장)

•**강제이주 정책** : 아시리아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의 주민을 강제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아시리아의 무자비한 강제이주 정책은 아시리아의 악명을 더욱 떨치게 하였다. BC 742년 아시리아는 3만 명의 시리아 인을 수 천 킬로 떨어진 자그레브맥 방면으로 옮겼으며 18,000명의 아람인을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북 시리아 쪽으로 보냈다. 이란 고원을 원정했을 때에는 65,000명의 이란 주민을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바빌로니아에 살던 154,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점령지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강제 이주시킨 것은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단일민족이 민족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하는 것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가 바로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고 새로운 혼혈족이 형성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다.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 지방이나 도시 전체를 송두리째 새로운 낯선 환경으로 옮겨 놓음으로서 그들 고유의 전통과 신에 대한 충성심을 빼앗고, 나아가 제국의 주민과 혼합시켜 반란의 근원이 되는 민족 감정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 강제 이주 정책은 아시리아에 대한 심각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반란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보면 점령지에서의 반란을 근절시키고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겠다. 공포심을 심어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강한 증오와 반감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잔학성의 배경** : 그러면 우리는 아시리아는 왜 이렇게 유난히 잔혹하였던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겪은 힘들었던 국가성장과정을 들고 있다. 외부세력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가 그런 잔학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 역사 초기에 아람인과의 긴 싸움, 주변에서 차례차례로 등장하여 그들 땅으로 침입해 오는 종족들과의 싸움, 오랜 독립의 역사를 가졌던 적이 있는 피정복 민족의 끊임없는 반란, 주변 강대국과의 긴장 관계 등이 자연스럽게 군국주의적인 풍조와 점령지에 대한 무자비한 통치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그러지 않고서는 제국의 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발전 과정과 지배 방식은 현대적 개념으로 말할 때 가장 노골적이며 전형적인 제국주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아시리아인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 자체로서 왕들에게 막대한 재화를 안겨다주는 엄청난게 수지맞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짧잡게 표현해서 그렇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왕이 국가 강도 때의 두목이 되어 국제적으로 행한 강도 강탈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강도 사업에는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이런 침략행위는 하나의 국가산업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몽고인들이 세계로 침략해 나갈 때의 정서와 유사하다. 세 번째 이유는, 신정국가인 아시리아에서 적들은 자신들의 신에 반역하는 반역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적은 그러한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고 보았으므로 징벌은 철저해야 했고 특히

반란의 경우에는 평정 후의 처리가 더욱 잔혹했던 것이다. 그들은 만일 자신들의 신에 반역한 적에게 응당한 징벌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역병, 홍수, 기근 등의 벌을 내린다고 믿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지배자의 논리에 철저했던 것이다.

•**강력한 군사기반** : 피정복민족에 대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아시리아인의 철혈 지배 선두에는 정강무비의 군대가 있었다. 유능한 왕에게 지휘되는 이 군대는 철제 무기, 부단한 훈련, 군국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세기에 걸쳐 패배라는 것을 몰랐다. 유목민의 용감성과 농민의 강인성, 산악인의 강건성을 겸하여 갖춘 아시리아 인들은 선천적으로 전사였다. 아시리아의 모든 영토와 사람은 아슈르 신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었으므로 같은 형제라는 생각으로 단결력도 강했다. 아시리아 군은 말에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최초의 군대이다. BC 14세기경에 말이 수레를 끄는 전차대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말에 사람이 타고 싸우는 기병은 한참 후인 BC 9세기에 아시리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아시리아군은 보병과 기병의 활약과 용맹도 뛰어났지만 당시로서 매우 특이한 부대가 있었다. 이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오늘날의 공병대와 같은 부대가 있었다. 이들 공병부대는 이 방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조직되어 적의 요새화된 성채를 공격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아시리아의 승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4. 성서와 연관성

(1) 아시리아와 관련된 성경 : 요나, 나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열왕기하, 역대하 등

(2) 남북 왕국의 역사적 상황

역사적 상황 : 이스라엘 왕조는 언제나 외세의 영향을 받아왔다. 완전한 자치국가로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시기는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BC 970-930)뿐이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때 확보한 영토를 유지할 수 없었다. 특히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은 솔로몬 왕 집권 당시에 이미 독립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강력한 적수가 되었고, 아래로는 이집트, 우측에 암몬족과 모압족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약해졌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세의 흐름을 주도할 만한 국력을 갖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열강들 사이에서 정치적 볼보로 전락해버렸다.



(3) 북왕국 이스라엘

비교적 넓은 북왕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교역로와 비옥한 농경지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품은 강대국들에게 정복하여 수중에 넣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단일 왕조에서 스무 명의 왕(여왕 하나를 포함하여)이 355

년 역사를 줄곧 통치해 온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2백 년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다섯 왕조, 열아홉 명의 왕을 맞아야 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여로보암 왕에서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나답×

↳바아사→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아합→아하시야→요람×

×스가랴←여로보암 2세←여호아스←여호아하스←예후↓

↳ 살룸→므나헴×

↳브가히야×

↳ 베가×

↳ 호세아×

→ : 같은 가문에 왕권이 이양되는 표시

× : 죽임을 당한다는 표시

↳ : 다른 가문의 사람에게 왕권이 교체되는, 혹은 왕위를 빼앗은 사람을 표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팽창해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윽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성경이 이 사건을 보는 시점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살만에셀의 후계자 사르곤 2세는 정복된 민족들에 대한 아시리아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배계급 대다수는 아시리아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정착했고, 그 대신 이 지역의 외국인들이 이스라엘로 끌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사마리아는 재건되어 새

로 수립된 아시리아의 사메리나 지방정부 행정중심지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민들 상당수가 여전히 남아서 야훼를 섬기고 선조들의 관습을 지켜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개중에 일부는 남쪽으로 피난하여 유다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들의 전승과 문학을 보존했던바 엘리야와 엘리사 계열의 설화, 궁정의 연보, 엘로히스트 서사시, 신명기에 보존된 율법 전승의 초기형태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했다. 그러나 국가라는 정치적 독립체로서의 북왕국은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이후 네 세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역사를 만드는’ 유다의 지배계급이 담당했다.

(4)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안정을 누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유다는 무역통로와 비옥한 농경지를 지닌 북왕국과는 달리 훨씬 작고 외졌다. 따라서 정복하여 지배하고 싶은 유혹거리가 되지 못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초기에는 두 왕국 사이에 간헐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지만, 북왕국 오므리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다윗 가문의 왕 아마샤(기원전 800-783년)와 아샤라/우찌야(기원전 783-742년) 치하에서 유다는 여로보암 2세(기원전 786-746) 치하의 북왕국이나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온과 번영을 구가했던 것 같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700년대 초에 약화되는 아시리아의 국력상태에서 비롯되었다.

600년대에 유다를 다스린 왕들 가운데 언급해둘 필요가 있는 왕은 셋이 있다. 우선 히스기야(기원전 715-686년)는 부왕 아하스(기원전 732-715년)의 대 아시리아 우호정책을 뒤집은 사람이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를 배격하고 민족주의를 키우는 운동의 일환으

로 예루살렘 성전예식에 침투한 아시리아의 요소들을 척결하고 예루살렘 이외의 야훼산당 및 여타의 산당들을 폐쇄함으로써 야훼신앙의 공식적인 입지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신명기계 역사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유다 왕국 왕들의 연대표

	왕명	평가	통치기간	통치했수	통치기간 나이	북부와의 관계
1	르호보암	×	922-915	17년	41-58세	전쟁
2	아비아	×	915-913	3년	?	전쟁
3	아사	△	913-873	41년	?	전쟁
4	여호사밧	△	873-849*	25년	35-60세	평화
5	여호람	×	849-842*	8년	32-40세	평화
6	아하시야	×	842	1년	22-23세	동맹
7	아달라(女)		842-837	7년	?	평화
8	요아스	△	837-800	40년	7-47세	평화
9	아마샤	△	800-783	29년	25-54세	전쟁
10	아사라(우찌야)	△	783-742*	52년	16-68세	평화
11	요담	△	742-735*	16년	25-41세	전쟁
12	아하스	×	735-715*	16년	20-36세	전쟁
13	히스기야	○	715-687	29년	25-54세	
14	므낫세	×	687-642	55년	12-67세	
15	아몬	×	642-640	2년	22-24세	
16	요시야	○	640-609	31년	8-39세	
17	여호아하스	×	609	3달	23세	
18	여호야김	×	609-598	11년	25-36세	
19	여호야긴	×	598-597	3달	18세	
20	시드기야	×	597-587	11년	22-33세	

※ 평가 중 ○는 야훼의 눈에 올바른 일을 한 왕,

×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한 왕,

△는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한 왕을 각각 가리킴.

※ 통치기간 중 *표는 섭정 기간을 가리킴.

히스기야의 후임자 므낫세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이다. 그의 오랜

재임기간(기원전 686-642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는 신명기 역사의 기록 말고는 별로 없다(왕하 21:2). 그는 틀림없이 충성스런 아시리아 가신 노릇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제왕다운 생활을 마음껏 과시하는 한편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가혹하고 억압적인 정책을 펴나갔음에 분명하다. 그의 가혹한 정책 속에는 유다의 전통적인 종교를 억누르고 박해하려 덤빌 정도까지 야훼신앙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소행도 포함되었다. 므낫세의 44년 통치가 끝나고 기원전 640년에 반아시리아 세력이 그의 손자 요시아를 왕으로 옹립하자, 신명기 사가들은 구원을 만난 듯 반가워하며 환호했다. 신명기 역사에서는 요시아가 진정한 영웅이요 구원자로 등장한다(왕하 22-23장 참조). 실제로 므낫세의 친아시리아 입장은 급속도로 반전되고, 신명기계 인사들의 지표와 일정에 따른 사회-경제 개혁 및 종교개혁이 한동안 수행된다. 초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신명기의 핵심부분으로 추정되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는’ 것도 요시아 시절이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발흥으로 위협받고 부대끼며 쇠퇴일로에 접어든 덕분에, 요시아는 일정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유다의 영향력을 북부까지 넓혀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던 영토와 주민 상당 부분을 거둬들이었다. 요시아는 북부 전승들을 바탕으로 하는 신명기계 노선에 따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북왕국 백성의 후예들로부터 호의적인 환대를 받아내게 된다.

그러나 요시아와 신명기계 인사들이 부풀게 만든 희망은 급속도로 소멸되었다.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덮쳐서 기원전 612년에 전설적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파괴한 다음, 이윽고 서쪽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혼돈과 소란이 한동안 계속되고, 요시

아 자신은 609년 므깃도 전투에서 피살당했다. 그의 뒤를 이은 네 명의 왕은 의지가 어떠한지 간에 강대국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볼모노릇을 하며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골치 아픈 속국 유다를 처리하고자 군대를 파견했다. 그 결과 기원전 587년에 유다는 유린당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었다. 바빌론인들은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 지르고 왕궁을 철저히 때려 부순 다음, 지배계급과 지도적인 시민들을 끌고 가서 바빌론에 유폐시켰다. 이로써 정치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유다의 존재는 사라졌다. 유다는 자매왕국 이스라엘이 135년 전에 맞이한 것과 동일한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